

■ 폐쇄된 탐동광장 낮 개방 놓고 의견분분

“바다보며 산책... 찬성” “코로나 확산세... 반대”

제주시 “점진적 개방 검토”



코로나로 폐쇄된 제주시 탐동 일대.

제주시 탐동광장이 폐쇄된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읍중 외에 산책이나 운동은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월 30일 탐동광장 폐쇄를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노상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탐동광장과 산책로(서부두방파제-라마다호텔·총 1.38km)에 1.5m 쇠기둥을 박고 그 위에 그물망을 씌우는 등 탐동광장에 대한 24시간 접근을 차단했다.

하지만 광장에서 읍중이 아닌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던 도민들은 24시간 광장 폐쇄 조치가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3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

도에 바란다’ 코너에는 탐동광장과 산책로를 오전·오후 시간에는 개방해야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낮 시간에 술판을 벌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상술판을 즐기는 이들을 막기 위해 광장을 24시간 폐쇄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탐동광장에서 농구를 즐겨했다는 강모(29)씨는 “폐쇄 이후 농구를 즐기던 도민, 학생들이 시민복지타운 광장으로 모이고 있어 오히려 풍선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출입 시간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낮 개방에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도민 B씨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특정시간대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탐동광장에 대한 점진적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당장 개방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확산세가 꺾이면 광장에 출입문과 출입시간을 지정, 개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꽃 피운 여름새우란 3일 제주시 조천읍 선율리 덩굴원에 여름새우란이 꽃을 피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동문시장 ‘의소대’가 없었다면...

지난달 31일 음식점서 불
시장내 의용소방대원 3명
초기 진압·소방 출동 도와
불 옮겨붙지 않는데 큰 힘
119, 3명에게 표창패 수여



조명섭 대원 이명준 대원 양은석 대원

제주 동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의용소방대원의 활약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5분쯤 동문시장 내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동문시장 전문의용소방대’로 활동하고 있는 조명섭(50), 이명준(43), 양은석(42)씨는 즉시 해당 식당 옆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 진압에 나섰고,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로를 미리 확보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불길은 다른 건물로 옮겨 붙지 않고 진압될 수 있었다. 피해 현황은 식당 소재 건물 1개동(점포 3곳)에서 냉장고와 식자재 등이 소실, 소방서 추산 약 4341

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소방본부는 신속한 대처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경감한 공로로 이들 3명에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박근오 제주소방본부장은 “전통시장 특성상 점포들이 밀집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급박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응에 나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소방은 도내 주요시장의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의용소방대는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각각 20명씩 운영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서부중학교’ 설립 승인 받았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적정”
36→30학급으로 축소 조정

토지매입 등 남은 과제 많아
2024년 개교 목표는 불투명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생들의 과대·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불편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가칭)서부중학교’ 설립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많고 시·군은 빠듯한 제주교육당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4년 3월 개교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교육부의 2021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서부중’ 신설에 대한 재심사 결과 ‘적정’ 판정으로 설립을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부 중투위가 부대의견으로 ‘학생 통학안전대책(도로개설, 보차분리, 버스노선확보 등)이

행’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설립 전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도교육청은 이번 재심사를 위한 학교 설립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인근 중학교(노형중, 제주서중, 제주중앙중, 한라중)의 학생수용 적정 배치력을 감안해 학급 규모를 당초 36학급에서 30학급(특수 1학급 별도, 전교생 843명)으로 축소 조정하기도 했다.

현재 2024년 3월 개교(목표)를 위해서는 남은 절차들의 순환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결정이 지연되면서 토지매입,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 진행도 미뤄지고 있다. 공사 소요 기간이 1년 6개월로 추산됐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 용역에만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목표로 하는 개교 일정에 시간이 빠듯하다.

더불어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도 미지수다. 일단 현재 학교부지 토지주와의 매도 협의는 99% 이상 완료된 상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관광객은 느는데... 관광지 ‘썰렁’

최근 1년 월 100만명 넘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성산일출봉·천지연폭포 등 공영관광지 발길 한산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공영관광지를 찾는 발길은 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총 662만2234명(잠정)으로 지난해 동기대비(552만2218명) 19.9% 증가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매월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는 등 관광객

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유명 공영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지난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성산일출봉의 탐방객 수는 23만2183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32만6703명)에 비해 28.9%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10만6750명)과 비교하면 7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기간 서귀포시 산방산·용머리의 탐방객 수(13만1267명)도 지난해 동기대비(22만1641명) 40% 가량 감소했다. 이 밖에 천지연폭포(45만1391명), 천제연폭포(18만5693명), 주상절리대(35만1294명), 정방폭포(29만4452명)는 전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관광객 회복세에도 이처럼 도내 공영관광지의 방문객 수가 저조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5인 이상 소모임 집합 금지 등의 방역조

치가 이어지면서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이 사라진 데다, 코로나 방역 일환으로 주요 공영관광지가 일정한 기간 폐쇄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공영관광지보다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계곡과 해수욕장, 휴양림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당분간 공영관광지 탐방객 감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이나 계곡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도내 관광업계에서도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지금 전화로 상담하십시오!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